

줄줄이 나오는 학교폭력 광주·전남 전수조사 시급

오랜 학교폭력에 극단적 선택 피해자가 모든 것 떠안는 구조 학생들이 믿고 공익신고 하게 경찰·교육당국 관리 나서야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수면 위로 줄지어 떠오르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소년들도 생겨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실적 쌓기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깊이질않고 터져나오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교육당국 등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학교폭력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전남경찰청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야산에서 고교생 A군이 오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B양이 지난 7월 31일 진도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군은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었다", B양은 "담임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학교폭력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메모를 남기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 몰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불러 위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폭력 영상을 촬영해 또래 친구들에게 보낸 10대 중학생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예 학교폭력 현실을 담아내지도 못했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내지 못했다. A군이 다녔던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단 한 명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었다. B양이 다녔던 학교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나왔지만 올해도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가 학폭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년 전인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정부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학교폭력이 여전한데다, 이들 대책이 학교폭력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껍데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내놓은 단기 처방, 일회성 강연 위주의 행사성 예방 교육, 실적쌓기식 실태조사 등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황한이 사학교폭력가족협의회 광주지부 센터장은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화해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여전하다. 교육당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태조사의 목적에 맞는 문항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뿐 아니라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문항을 공개받은 물론 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공익 제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 혹은 보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변화를 빨리 체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교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이 믿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감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기성세대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와 부모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하람의 우아한 회전 ... 올림픽 4위, 한국 다이빙 최고 성적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이 3일 도쿄 아쿠아티크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우하람은 이날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 12명 선수 중 4위를 차지, 한국 다이빙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냈다. ▶관련 기사 7, 18, 19면 /연합뉴스

광주·전남 '델타 변이' 주종 됐다

전체 확진자 64.3% 점유

변이의 변이 '델타 플러스'까지

광주·전남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인 주종이 됐다. 3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는 광주 88명, 전남이 83명 등 모두 171명이다. 이 중 영국발 알파 변이는 광주 31명과 전남 30명 등 61명, 인도발 델타 변이는 광주 57명과 전남 53명 등 110명으로, 델타변이가 64.3%를 점유하며 주종이 됐다.

특히 광주에선 지난 6월 22일 델타변이가 첫 발견된 이후 기존 알파와 신종 델타 바이러스가 주종 경쟁을 벌였으며,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28명(국내 감염 24, 해외유입 4)은 모두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인 주종이 됐다고 밝혔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다른 변종인 알파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도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내에선 '델타 변이'의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가 기존의 인도 유래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2명 확인됐으며, 감염자 중 1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고 나머지 1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50대 확진자"라고 밝혔다. 특히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이후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 'K417N'라고 불리는 돌기 단백질 변이가 하나 더 생긴 것을 말한다. K417N은 베타 변이(남아공발)와 감마 변이(브라질발)에서 발견된 단백질 변이이다. 전파력이 강한 베타 변이의 특성을 물려받아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 9일 재판 받으려 광주 온다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출석

전두환(90)씨가 오는 9일 광주법정에 다시 선다. 3일 법조계와 전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 전씨가 출석하기로 했다. 전씨가 다시 광주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5월 단체 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씨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5일 열린 법정기일

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도 전씨는 지난번 출석과 마찬가지로 이순자씨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는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후문에서 전씨의 출석에 대한 입장표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50인 이내의 피켓시위 등을 예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본은 없다"
올림픽 야구 준결승
오후 7시 한국:일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걸음 교육특권! 중심 생활특권!
준비된 특권을 누리다!
남약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특별공급	1순위
8월 9일(월)	8월 10일(화)
2순위	당첨자 발표
8월 11일(수)	8월 18일(수)

7월 30일(금) GRAND OPEN

84㎡ A·B 총 543세대

평당 1899-6990

시행 세종건설산업 사공 중흥토건
※ 상가 투시도는 사업승인 도면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식재, 옥탑부,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설물 등의 위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